

主要經濟動向

經濟企劃院

I. 主要經濟動向

89년 1월중 産業生産은 前年同月比 3.6% 증가에 그쳐 지난 12월에 이어 예상했던대로 계속不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運輸裝備業種 등에서의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의 확대, 원화절상에 따른 輕工業部門의 輸出鈍化, 異常暖冬으로 인한 越冬용품의 소비부진등의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景氣同行指數가 지난 달에 이어 전월비 0.2% 下落하였고 循環變動值도 10월이후 계속 下落勢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建築許可面積, 民間建設受注, 機械受注 등 민간企業의 投資가 지난달에 이어 계속好調勢를 나타내고 耐久財를 中心으로 한 民間消費도 높은 增加勢를 持續하고 있으며 景氣先行指數도 계속 上昇勢를 보이고 있어 우리 經濟의 成長基調는 기본적으로 健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勞使紛糾에 있어 분규수준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紛糾의 장기화로 生産 및 輸出蹉跌額이 크게 增加하는 추세에 있어 본격적인 임금협상시기를 앞두고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 우려가 되고 있다.

한편, 89년 2월중 物價는 都賣物價는 전월대비 0.2%, 消費者物價는 0.3% 상승하였으나 比前年末로는 都賣는 保合, 消費者物價는 0.5% 상승하여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都賣物價가 다소 오른 것은 설날을 앞두고 사과, 일반미 등 農産物價格과 國際價上昇에 따라 一部 工産品價格이 올랐기 때문이며 消費者物價는 설날 영향으로 인한 畜水産物價格과 임대료, 人件費 등 個人서비스料金이 상승한데 기인한다.

한편 不動産價格은 12월이후 서울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 및 시승적, 北方交易등과 관련된

일부지역의 토지가격이 上昇기미를 나타냈으나 政府의 강력한 投機抑制 意志表明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89년 1월중 經常收支는 5.4억불 黑字로 전년동월에 비해 2.5억불 감소하였다. 經常收支黑字가 줄어든 것은 지난 연말의 早期船積과 1월중의 노사분규등으로 輸出增加勢가 둔화된데다 關稅率 引下期待로 지연되어 오던 輸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貿易收支黑字規模가 전년동월에 비해 2.5억불 감소한데 주로 기인한다.

89년 2월중 總通貨는 政府의 強力한 통화환수노력에 힘입어 平殘基準 19.1% 증가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部門別로는 정부, 민간, 해외, 기타등 모든 부문에서 환수가 이루어졌는데 우선 政府部門에서는 財政證券發行, 民間부문에서는 貸出金回收, 海外部門에서는 經常收支黑字規模縮小 및 外債償還, 그리고 기타부문에서는 通安證券發行擴大를 통하여 通貨를 還收하였다.

이와같이 최근 우리經濟는 産業生産, 輸出등이 일부 鈍化되고 있기는 하나 投資, 消費등이 높은 增加勢를 持續함으로써 憂慮할 水準은 아닌것으로 判斷된다.

89년 1월중 産業生産 增加率, 景氣同行指數등이 下落한 것은 勞使紛糾등에 따른 생산차질, 원화切상에 따른 輕工業部門의 輸出鈍化, 이상난동에 따른 越冬用品의 消費不振등의 要因에 기인되고 있다.

그러나 建築許可面積, 民間建設受注, 機械受注 등 民間企業의 投資關係指數가 繼續 호조를 보이고 民間消費도 耐久財를 중심으로 높은 增加勢를 持續하고 있다. 또한 경기선행지수도 繼續 上昇하고 있으며 企業에 대한 各種 調查結果도 內需를 中心으로 景氣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한편 物價 및 不動產 價格에 있어서는 總需要 管理強化, 物價安定綜合對策의 마련, 不動產投機 抑制을 위한 各種施策의 推進등으로 어느정도 安定趨勢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앞으로 景氣는 지난해에 비해 大幅 增加하고 있는 勞使紛糾의 迅速, 원만한 수습과 通常摩擦의 緩和與否가 關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貨金협상기를 앞두고 紛糾水準의 增加 및 長期化로 生産 및 수출차질액이 크게 增加하고 있고 또한 美國의 優先協商對象國 指定을 앞두고 對美通常摩擦要因이 增大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府는 景氣動向을 예의주시하여 勞使關係 安定的 重要性에 대한 勞使兩側과 全國民의 주의를 환기하고 勞使紛糾에 迅速히 對應하는 體制를 갖추어 나가는 한편 對美通常摩擦要因을 최대한 緩和시켜 나가면서 總需要管理의 強化, 不動產投機抑制施策의 持續的推進, 資金흐름의 正常化등 景氣의 安定的管理에 注力해나갈 것이다.

II. 部門別動向

1. 實物動向

〈景氣〉

89년 1월중 우리經濟는 生産·出荷등 産業活動이 지난 12월에 이어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작년 1월중 비교적 높은 신장세를 보였던 組立金屬·運輸裝備·電氣機器業種등에서의

勞使紛糾로 인한 生産차질, 원화절상에 따른 輕工業部門에서의 輸出不振, 電子機器業種에서의 通상마찰로 인한 先進國의 輸入規制, 그리고 이상난동에 따른 越冬用品의 소비부진에 주로 기인한다.

이에따라 景氣同行指數가 지난달에 이어 前月比 0.2% 下落하였고 순환변동치도 100.0p로 10월이후 下落勢가 持續되고 있다.

그러나 建築許可面積, 건설수주, 기계수주등 民間企業의 投資關聯指標가 계속 好調를 보이고 民間消費도 耐久財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持續하고 있으며 景氣先行指數도 계속 上昇하고 있는 점등을 綜合的으로 勘案할 때 現在의 景氣狀況은 年12%의 높은 成長勢에서 正常化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서 크게 우려할만한 水準은 아닌 것으로 判斷된다.

〈生産·出荷·稼動率〉

89년 1월중 産業生産은 지난달에 비하여 0.7% 減少하였고 전년동월비로는 3.6% 增加에 그쳐 産業生産增加勢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렇게 産業生産이 不振한 것은 勞使紛糾에 따른 生産蹉跌(組立金屬, 전기기기, 運輸裝備業), 원화절상에 따른 輸出不振(纖維·신발·고무등 輕工業部門), 통상마찰에 따른 輸出不振(칼라 TV, VTR등 電子製品), 이상난동에 따른 越冬用品의 消費不振등에 기인한다.

그 결과 業種別로 보면 지난해 1월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電子(38.0→12.9%), 運輸裝備(63.0→-2.3%), 組立金屬(13.3→-8.9%), 고무(23.2→-23.0%), 가죽(6.8→-17.6%)등의 業種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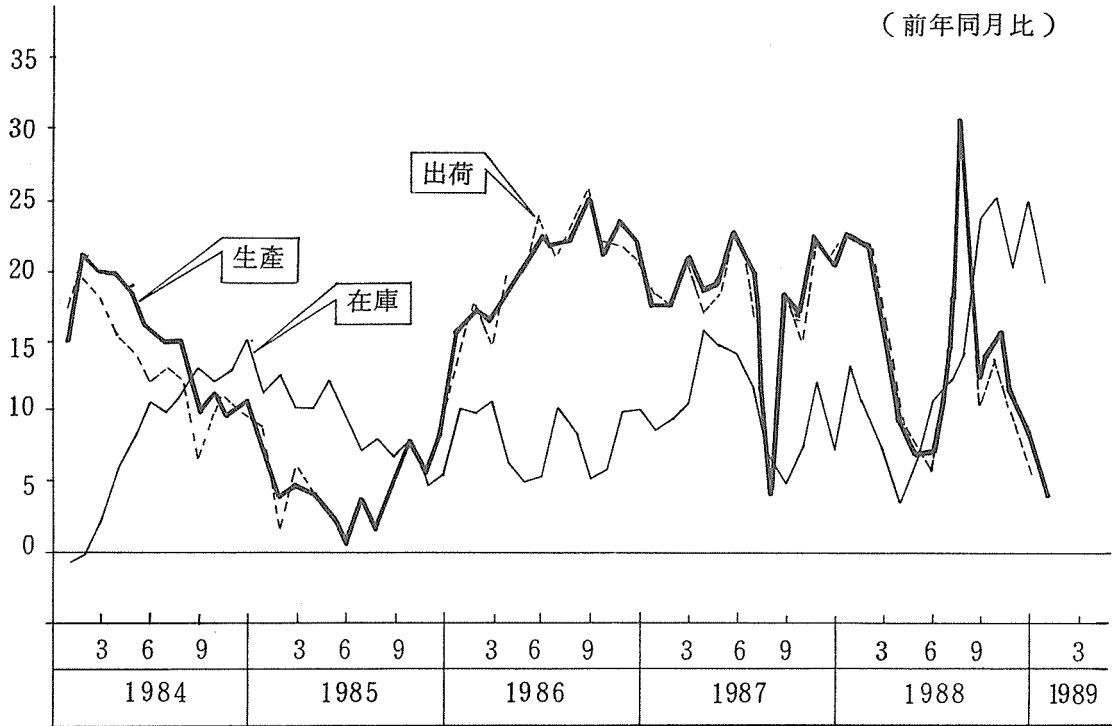
〈景氣綜合指數推移〉

(比前月, %)

	1988. 1	8	9	10	11	12	1989. 1
同行指數	1.0	2.2	0.9	0.5	0.2	-0.2	-0.2
先行指數	2.4	1.9	0.4	0.9	-0.6	0.6	0.3
同行指數 循環變動值	105.3	101.8	102.1	102.0	101.6	100.8	100.0

〈生産・出荷・在庫 増加率 推移〉

(前年同月比)



〈産業活動動向〉

(%)

	1988 年間	1		10		11		12		1989. 1	
		比前月	比前年同月	比前月	比前年同月	比前月	比前年同月	比前月	比前年同月	比前月	比前年同月
産業生産	13.8	2.6	22.3	3.5	15.4	-0.3	10.2	-1.9	7.2	-0.7	3.6
出荷	13.4	3.2	22.4	1.2	13.4	2.4	9.1	-3.2	5.6	1.9	4.3
在庫	13.9	6.5	13.0	4.6	25.0	1.1	20.1	2.4	24.8	1.4	18.8
製造業稼働率	80.4	84.3		80.6		81.1		78.5		80.0	

주: 계절조정

서 큰 幅의 鈍化를 나타냈다. 반면 종이·印刷出版·나무 및 나무製品등 内需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業種은 産業活動이 비교적 活潑하였다. 出荷는 작년 12월에 비하여 1.9% 증가하였고

前年同月比 4.3% 증가하였다. 內需用出荷는 前年同月比 10.9% 증가로 건조한 증가세를 維持하고 있는 반면 輸出用出荷는 전년동월비 10.9% 減少하였다. 業種別로는 석유경제, 飲食料品

〈建設投資動向〉

(比前年同月, %)

	1988年間	1	10	11	12	1989. 1
建築許可面積	24.6	18.8	22.3	-15.8	15.0	21.6
住居用	34.6	61.7	28.2	-31.3	13.9	-4.8
工業用	17.7	-43.4	-34.3	3.1	7.9	30.8
商業用	22.1	69.7	24.1	-6.7	20.8	68.4
建設受注	0.6	33.6	-12.4	-7.2	-10.6	28.2
公共	-22.0	81.3	-31.0	-49.3	-46.5	-23.3
民間	28.3	2.3	0.3	46.6	91.3	88.6
(製造業)	(24.3)	(74.9)	(-4.3)	(-10.2)	(244.4)	70.7

〈機械設備投資動向〉

(比前年同月, %)

	1988年間	1	10	11	12	1989. 1
國內機械受注 ¹⁾	25.3	33.3	42.3	27.6	69.0	51.1
公共	-6.2	-40.8	120.9	-24.6	124.2	63.8
民間	40.6	66.2	37.3	45.4	41.0	48.8
(製造業)	(28.0)	(46.2)	(28.6)	(8.5)	(-2.5)	(33.0)
海外機械受注 ¹⁾	15.5	1.8	-41.3	24.2	43.2	65.9
一般産業用機械輸入許可	32.2	-14.5	43.3	-25.3	71.2	52.6

1) 船舶除外

業種등에서 늘어났고 고무제품, 組立金屬·器械·運輸裝備등의 業種은 輸出物量 減少등의 影響으로 出荷活動이 不振하였다.

작년 9월 이후 急速히 증가하기 시작한 在庫는 이달들어 전년동월비 18.8%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業種別로는 나무제품, 석유화학 業種등은 성수기를 대비하여 在庫가 小幅 늘어났으나 비금속광물, 1次金屬등은 在庫가 減少하였다.

製造業稼働率は 80.0%로 12월에 비해 다소 上昇하였다. 이는 原指數上으로는 前月比 6.5% 감소(80.7→75.5%)하였으나, 예년 1月(통상 前月比 약 8.3%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낮아 계절

변동조정지수로는 1.9% 上昇하였기 때문이다. 業種別로는 電氣電子·運輸裝備 業種등에서 勞使紛糾의 影響으로 계속 낮은 水準이었으나 1次金屬, 종이製品등 內需好調業種에서는 操業率이 높아졌다.

〈投資〉

89年 1月中 投資活動은 지난달에 이어 建築 및 設備投資 모두 活潑한 모습을 보였다. 建築許可面積, 건설수주등 建設投資關聯指標가 製造業을 중심으로 큰 폭 늘어났고 기계수주, 海外機械 輸入許可등 設備投資도 건조한 증가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建築許可面積은 工業用, 商業用을 中心으로

전년동월비 21.6% 증가하였다.

국내건설수주는 機械·石油化學등 製造業에서 전년동월비 70.7%로 큰폭 증가하는 등 民間部門이 호조를 보여 공공부문의 不振에도 불구하고 全體的으로 전년동월비 28.2% 增加하였다.

한편 國內機械設備投資動向을 보면 光양제철소 냉연설비 증설등으로 公共部門에서 호조를 보인데다 自動車등을 中心으로 製造業과 運輸·建設業등을 中心으로한 非製造業에서도 높게 增加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비 51.1%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一般産業用 輸入許可도 전년동월비 52.6% 增加로 12월에 이어 繼續호조를 보이고 있다. 業種別로는 運搬用, 金屬加工用 기계류의 輸入許可가 큰폭 증가하였다.

〈消費〉

1월중 都賣販賣는 前年同月比 6.5%, 小賣販賣는 4.8%에 그쳐 全體的으로 5.6% 增加하였다.

都賣販賣는 機械, 纖維衣服등이 增加하였으나 金屬·가정용구 등은 減少하였고 小賣販賣는 장신구등이 증가하였으나 이상난동으로 인한 電熱器·熱料등 越冬用品이 減少하였다.

그동안 높은 增加熱를 보여오던 內需用 消費財 出荷는 내구재를 中心으로 22.8% 增加하여 높은 增加勢를 유지하고 있다.

業態別로 百貨店 販賣는 前年同月比 9.7% 增加에 그치고 슈퍼마켓販賣는 4.1% 增加에 그쳤다.

〈主要業種別 動向〉

(概況)89년 1월중 국내산업활동은 勞使紛糾로 인한 생산차질과 수출수요 둔화로 전월에 이어 계속 부진하였다. 內需部門에서는 특별소비세 인하, 重化學 工業의 활발한 설비투자에 힘입어 家電製品, 自動車, 工作機械등에 需要가 증가하였으나 이상난동 현상의 지속으로 冬節期商品의 수요는 감소하였다. 수출은 지난 年末의 早期船積과 섬유·신발·완구 등 勞動集約的 商品의 수출경쟁력 악화등으로 신장세가 둔화되었다.

國內業界가 성장기반을 내실화하기 위해 內需比重을 확대하는 가운데 각종 輸入制限法令의 철폐와 關稅率인하 등 수입확대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內需市場에서의 國內외업체간 販賣競爭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市場占有率을 확대하고 수입대항력을 키우기 위해 技術開發投資 強化를 통한 제품품질수준제고와 함께 生産性向上 및 원가 절감노력을 보다 강도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격적인 賃金協商時期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빈번한 勞使紛糾는 長期化·大型化趨勢를 보이고 있어 紛糾發生 業體뿐만 아니라 關聯産業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따라서 國內産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을 주지 않고 투자분위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勞使兩側이 대화를 통한 원만한

〈消 費 動 向〉

(比前年同月, %)

	1988年間	1	10	11	12	1989. 1
都 小 賣 販 賣	7.8	9.5	5.8	8.3	4.9	5.6
都 賣	10.7	16.3	10.9	10.6	6.6	6.5
小 賣	5.1	3.3	1.2	6.2	3.4	4.8
內需用消費財出荷	19.8	27.0	21.9	17.7	14.5	22.8
耐 久 財	32.9	57.7	39.0	31.8	21.6	46.8
非 耐 久 財	14.8	18.2	15.5	12.0	11.7	13.6

勞使關係維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자동차 : 自動車工業은 조업활동의 정상화로 생산이 호조를 나타내었으며 內需도 생산호조에 따른 積滯物量의 출고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自動車大衆化의 진전으로 높은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출은 연말 輸出集中現象과 早期船積의 영향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감소하였다.

現代自動車는 미국시장에서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1987년부터 미쓰비시자동차의 영업망을 통해 연 3만대규모의 엑셀을 OEM方式으로 수출한데 이어 1991년부터는 캐나다에서 생산된 쏘나타를 미쓰비시自動車와 자본 및 기술 제휴 관계에 있는 크라이슬러社에 OEM防式으로 공급키로 합의하여 생산 및 판매면에서도 韓·美·日 3국간 相互協力體制가 강화되고 있다.

電氣·電子 : 電子工業은 원貨切上, 賃金引上,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및 전월의 早期船積 등으로 수출신장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으나 國民所得 증가, 特別消費稅 引下 등에 따른 내수시장의 확대로 비교적 안정된 산업활동을 보였다. 특히 사무자동화 진전, 컴퓨터教育의 정규과목 채택, 업계의 低價型新製品開發 등으로 퍼스컴, 팩시밀리 등의 내수가 호조를 보였다.

한편 256 KD램 등 記憶素子の 販賣好調에 힘입어 好況局面이 지속되고 있는 半導體는 최근 三星電子, 金星半導體, 現代電子 등 주요업체들을 중심으로 1M 및 4M D램 量産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치중해 온 메모리소자 뿐만 아니라 게이트어레이 등 ASIC製品的 개발에도 주력하는 등 製品多樣化를 積極推進하고 있다.

一般機械 : 一般機械工業은 일부 대기업의 勞使紛糾로 인한 제품생산차질로 전월에 비해 부진하였다. 그러나 생산성향상을 위한 산업용 로봇 등 自動化器機, 石油化學工業의 설비신·증설에 따른 化學機械, 自動車·電子업계의 호황에 따른 공작기계, 춘계 농번기에 대비한 이앙기·경운기 등 농업용 기계의 생산이 증가하였다. 수출은 纖維機械, 旋盤·밀링 등 汎用工作機械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입은 關稅率引下 등 수입확대조치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대공산권 교역확대 및 機械類 수입다변화시책으로 체코, 중국등으로부터 纖維機械, 工作機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金屬工作機械의 NC化가 확산됨에 따라 NC裝置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생산시설의 未備와 製造技術의 취약으로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依存하고 있다. 따라서 NC裝置에 대한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鐵鋼 : 鐵鋼工業은 自動車, 一般機械, 電氣·電子 등 國內需要産業의 수요신장으로 지난달에 이어 활발한 생산활동을 보였다. 그간 내수급증으로 需給不均衡이 심화되었던 冷延鋼板, 亞沿鍍鋼板, 鋼管 등 일부품목은 浦鐵의 光陽第1冷延工場 준공과 聯合鐵鋼의 操業再開 등으로 품귀현상이 거의 해소되었다. 中厚板도 일부 조선소의 勞使紛糾로 인한 수요감소와 浦鐵의 輸出物量 감축으로 수급이 원활해지고 있다.

그러나 핫코일은 浦鐵의 자체수요증가와 聯合鐵鋼의 조업재개에 따른 內需急增으로 공급부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日本으로부터의 핫코일 수입확대도 어려워 浦鐵은 슬랩을 東南亞등지로 보내 핫코일로 들여오는 貨加工形態의 수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石油化學 : 石油化學工業은 관련산업의 수출호조로 인한 內需增加가 지속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생산활동이 활발하였으나 TPA/DMT, PS/ABS등을 중간원료인 P-Xylene, SM등의 國內生産能力 부족 및 國際價格의 급등으로 생산차질을 빚어 需給不均衡이 계속되었다.

건설업체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현재 진행중인 麗川團地의 設備新·增設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에틸렌, VCM 등의 수급계획에 차질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조속한 紛糾妥結을 통하여 建設工事が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麗川團地의 新規 나프타分解業體로 湖南石油化學(에틸렌기준연산 350千M/T)이 확정

되었는 바 認可된 나프타分解設備가 모두 준공되는 1990년의 국내 에틸렌 총생산능력은 연산 2,105千M/T에 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非金屬鑛物 : 非金屬鑛物 업계는 非需期の 영향으로 시멘트 등 주요 非金屬鑛物에 대한 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盛需期에 대비한 재고 축적을 위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보였다.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호황으로 인해 시멘트, 板유리, 타일 및 衛生陶器 등의 설비 신·증설 및 현대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업계의 경우 1988년도에 경영수지가 전년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織維 : 織維工業은 설날 特需 등에 힘입어 내수가 다소 신장되었으나 원貨切上の 지속으로 수출신장율이 크게 둔화됨으로써 부진한 산업활동을 보였다.

스웨터업계는 최근들어 일본을 경우한 對蘇聯特需로 활기를 띠고 있는데 향후 蘇聯과의 직교역이 이루어질 경우 대소련 스웨터수출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아동복의 수요패턴이 종래의 실용성위주에서 패션화경향을 보이면서 고급아동복 필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衣類業界는 고급아동복 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販賣競爭을 벌이고 있다.

신 발 : 신발공업은 수출이 미국, 유럽 등 主輸出市場의 재고누적과 수입선전환 등으로 신장율이 크게 기하됨에 따라 부진한 産業活動을 보였다.

그러나 전년 10월이후 매우 부진하였던 신발 해외수주가 미국시장의 재고감소 등으로 2월들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가격도 3~5%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輸出競爭力弱화로 신발업계의 海外進出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전년말 기준으로 和承등 16개사가 태국등지로 합작진출한 바 있으며 금년중에도 中小業體를 포함한 30여개 업체가 海外進出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造船 . 월중 新造船受注는 32척 79.6천 G/T에 그쳐 전년동월비 74.5% 감소하는 부진을 보

였다. 그러나 최근 三星重工業과 大宇造船이 유리한 代金決済條件으로 풀컨테이너선과 VLCC 등을 高價로 수주함에 따라 景氣沈滯現象을 보였던 造船業界에 활력을 주고 있다. 반면 월중 新造船 건조실적은 現代重工業 勞使紛糾의 여파로 전월비 44.7% 감소한 8척 216.4천G/T에 그쳤다.

한편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現代重工業의 勞使紛糾로 인해 現代重工業은 賣出額減少와 對外信認度 低下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또한 中小下請機資材業體들도 未收機資材貸金 및 재고의 누적으로 인해 자금회전상의 차질을 빚고 있어 紛糾가 장기화될 경우 연쇄적인 휴폐업이 우려되는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海運 : 최근의 해운시황은 연초의 輸出入物動量 감소추세와 부정기선부문의 운임하락으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정기선의 경우 최대항로인 北美輸出航路에서 수출컨테이너 물동량이 전월비 23.3% 감소하였으며 국적선사 적취율도 24.9%로 4.5% 포인트 낮아졌다. 不定期船部門도 建貨物船은 소련의 곡물수입 및 일본, 유럽의 製鐵原料輸送增加로 운임지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2월들어 운임급등에 따른 주요수입국의 관망으로 上昇勢가 주춤하고 있다. 유조선부문은 OPEC의 減產合意에 따른 유가상승으로 原油輸送需要가 감소하여 유조선운임지수가 전월에 비해 20%이상 下落하였다.

한편 韓·蘇直航路 開設과 관련하여 蘇聯의 보스토치니, 나호드카港과 韓國의 부산, 인천항 등 주요항구의 개방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積取貨物의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2. 對外去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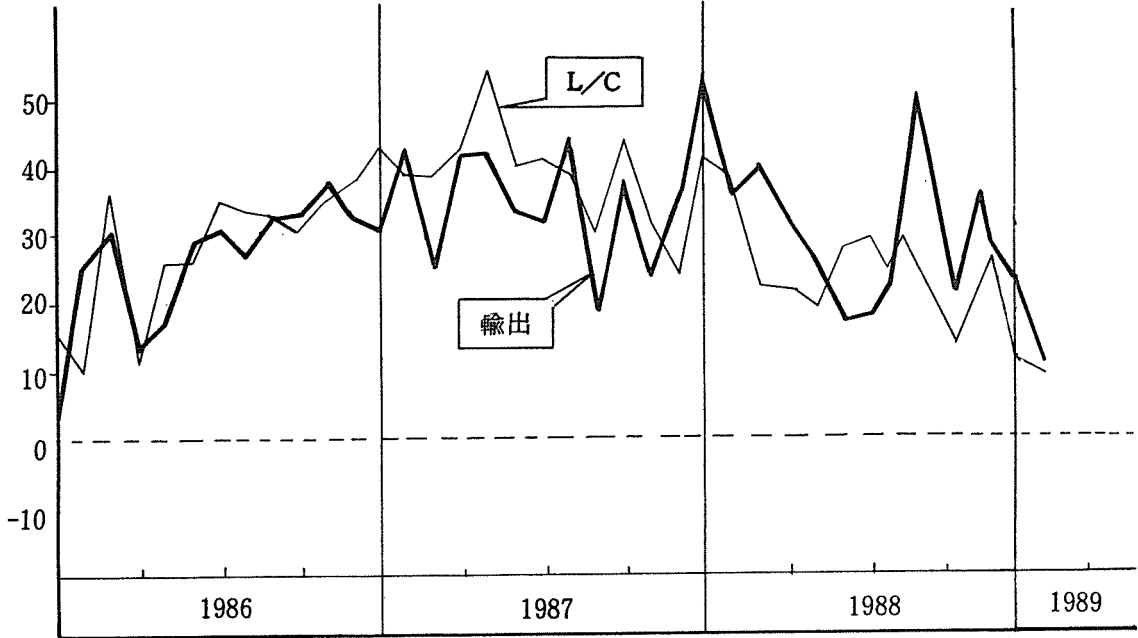
<輸 出>

1월중 輸出은 43.9억불로 전년동월에 비해 10.9% 增加하였으며 2월에는 5.4%로 增加勢가 둔화되었다.

1월중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원화절상

〈輸出増加率 推移〉

(比前年同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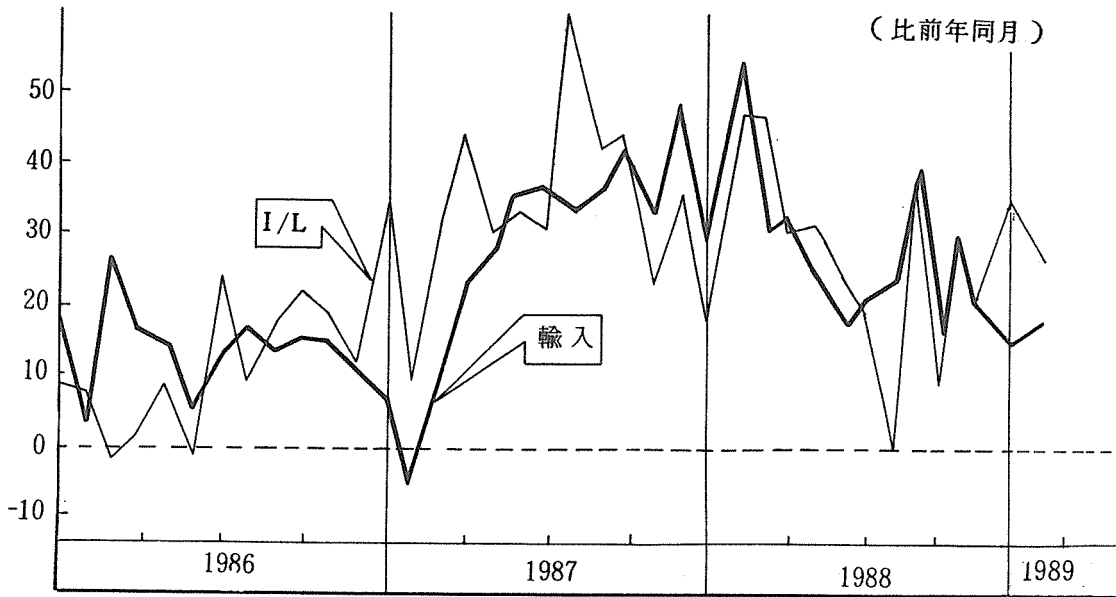


〈品目別 輸出〉

(通關, 億弗, 비전년동월, %)

	1988. 1		11		12		年間		1989. 1	
	金額	増減率	金額	増減率	金額	増減率	金額	増減率	金額	増減率
食料및直接消費財	1.9	55.2	2.2	1.0	2.4	2.1	26.2	19.6	1.7	-14.0
原料 및 燃料	0.8	-8.0	1.3	0.0	1.3	-7.9	14.0	-7.9	1.2	59.9
輕工業製品	16.1	25.2	19.4	15.7	23.1	17.0	239.4	21.9	17.6	9.3
織 維	8.8	22.4	10.7	22.0	13.2	24.2	133.5	22.4	9.7	10.1
신 밭	2.5	39.3	2.6	-5.5	3.0	-4.7	34.1	24.8	2.4	-6.7
완 구	0.7	6.6	0.9	0.1	0.9	3.8	10.4	-7.3	0.8	8.2
重化學工業製品	20.8	47.9	34.2	42.6	37.3	25.9	327.4	36.8	23.5	12.7
鐵 鋼	4.0	78.8	4.9	17.3	5.1	-2.9	53.8	35.0	3.8	-5.1
機 械	3.0	38.9	5.3	44.6	6.0	47.9	51.7	50.9	3.7	26.2
電 子	5.4	43.8	8.1	38.6	9.1	31.7	83.3	33.0	6.8	27.1
自 動 車	2.4	94.7	4.1	33.0	5.6	48.1	35.9	20.2	1.2	-49.3
船 舶	0.6	4.1	3.9	265.6	2.8	20.1	17.6	54.7	0.8	34.8
總 計	39.6	36.6	58.1	31.3	64.0	22.0	607.0	28.4	43.9	10.9

〈輸入增加率 推移〉



〈品目別 및 用途別 收入〉

(通關, 億弗, 比前年同月, %)

	1988. 1		11		12		年 間		1989. 1	
	金 額	増減率	金 額	増減率	金 額	増減率	金 額	増減率	金 額	増減率
消 費 財	3.3	41.1	4.6	24.2	4.7	22.8	49.0	24.8	4.3	27.9
原 資 材	19.8	51.2	24.1	11.9	23.2	0.4	278.8	23.7	24.0	21.7
原 油	3.1	73.4	3.2	-22.3	1.8	-62.6	36.9	-0.4	3.0	-3.1
輕工業原料	3.5	72.6	3.8	14.4	3.8	-1.6	47.2	33.0	3.8	8.2
化 工 品	2.8	33.7	3.8	28.7	3.8	30.3	42.5	31.0	3.7	33.9
鐵 鋼 材	1.5	43.2	2.3	37.4	2.7	57.5	24.3	28.5	2.3	49.2
資 本 財	13.8	80.2	17.4	33.2	20.8	29.8	190.3	30.8	15.5	12.7
機 械	5.5	69.1	7.6	27.4	7.7	4.9	79.0	27.7	6.5	18.7
電氣·電子	5.0	58.7	7.1	37.7	6.9	9.0	71.8	25.7	3.4	7.1
輸 送 裝 備	1.6	311.2	0.1	-74.5	0.1	-66.9	2.2	-45.6	2.0	21.6
內 需 用	21.3	65.4	27.7	20.7	29.8	15.5	307.3	32.4	27.3	28.0
輸 出 用	15.5	52.5	18.5	19.8	18.9	10.2	210.8	18.4	16.5	6.4
總 計	36.9	59.7	46.0	19.9	48.8	13.4	518.1	26.3	43.9	18.9

등에 따라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부진한외에 지난 연말 換差損을 줄이기 위해 早期통관을 극대화시킨데다 본격적인 貨金協商時期(3-5月)

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수출 차질이 컸던데 기인한다.

1월중 輸出을 품목별로 보면 重化學工業製品中 鐵鋼은 국내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핫코일 重厚板 등 일부품목의 수출제한으로 전월에 이어 5.1%의 減少勢를 보였으며, 자동차도 勞使紛糾 및 전년말의 집중선적의 영향으로 49.3%가 감소하였다.

또한 그동안 높은 增加率을 유지해 왔던 電子·電氣도 半導體等 技術集約的 高附加價值 製品의 경우 전년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가정용 전자제품등 중급품의 경우 통상마찰 등의 영향으로 增加勢가 전월의 31.7%에서 27.1%로 다소 둔화되는등 전반적인 부진을 면치 못해 重化學工業製品 전체의 수출증가율도 전월의 25.9%보다 크게 낮아진 12.7% 증가하는데 그쳤다.

輕工業製品은 신발이 미국의 在庫累積으로 인한 對美輸出감소로 전월에 이어 6.7%의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섬유, 완구등도 그간의 원화절상으로 인한 競爭力 弱화로 바이어의 東南亞 開途國으로의 이탈이 계속됨에 따라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 輕工業製品전체로는 전월의 17.0%보다 둔화된 9.3%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편 1월중 輸出信用狀(L/C) 내도액증가율은 7.9%로 12월의 9.0%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輸 入〉

1월중 輸入增加率은 18.9%로 전월의 13.4%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으며, 2월에도 증가율은 17.1%로 輸出增加率을 웃돌았다.

1월중 輸入增加勢가 상승한 것은 금년 1월부터 關稅率이 평균 5.5% 인하됨에 따라 관세율 인하기대로 지연되었던 輸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월중 輸入을 品目別로 보면 原資材는 그동안 備蓄用輸入의 擴大에 따른 재고증가로 原油 導入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공품과 철강재의 수입이 크게 늘어 전월의 보합세에서 21.7%의 큰폭 증가로 돌아선 반면 資本財는 최근의 수출둔화로 電氣·電子 등의 부품수입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체 수입증가율보다 낮은 12.7% 증가하는데 그쳤다. 消費財는 주로 사료

용 곡물 및 기호성 消費財 수입증가로 27.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用途別로 보면 그동안 輸入增加를 주도하여 왔던 需要用 輸入이 전년동월 대비 28.0% 증가해 수출용 수입증가율 6.4%를 크게 앞질렀다.

한편 1월중 輸入許可(I/L) 증가율은 27.6%로 전월의 34.3%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國際收支〉

1월중 經常收支黑字는 5.4억불로 전년동월에 비해 2.5억불이 減少하였다. 무역수지는 輸出增加率(通關基準)이 전년동월의 35.4%에서 10.9%로 둔화됨에 따라 전년동월에 비해 2.5억불이 줄어든 4.3억불의 흑자를 시현하였다.

貿易外收支는 海外旅行 자유화로 海外旅行經費 支給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對外資産 증가 및 對外負債 감소에 따른 投資收益收支의 개선으로 0.8억불의 黑字를 나타냈으며 移轉收支는 個人送金受入이 줄어든 반면 海外送金規制 완화조치로 個人送金支給이 늘어남으로써 전년동월에 비해 1.0억불 줄어든 0.3억불 흑자에 머물렀다.

資本去來를 보면 長期資本收支는 借款元金償還 증가등으로 3.4억불의 支給超過를 보였으며 短期資本收支도 短期貿易信用(純) 및 原油短期借入(純)등을 중심으로 2.5억불의 支給超過를 나타냈다.

88년중 經常收支黑字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돈 142.7억불에 달해 통화증발 및 대외통상마찰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금년 1월들어 黑字規模가 큰폭으로 줄어들어 黑字管理의 부담을 다소 줄어든게 되었다. 이와같이 經常收支 黑字가 축소된 것은 노사분규, 원貨切上 및 지난해 12월의 早期船積 등으로 輸出增加率이 둔화된데다 금년 1월부터 실시된 關稅率 引下措置로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무역수지가 줄어든데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1월중 經常收支黑字가 5.4억불을 기록하고 2월중에는 그 이상의 黑字가 예상됨에 따라 연간으로는 당초 展望대로 95억불 규모의

〈國際收支推移〉

(億弗)

	1988				1989	增減 (B-A)
	1 (A)	11	12	年間	1 (B)	
經常收支	7.9	14.7	17.2	142.7	5.4	-2.5
貿易收支	6.8	11.8	16.6	115.6	4.3	-2.5
貿易外收支	-0.2	2.3	0.1	12.8	0.8	1.0
移轉收支	1.3	0.6	0.6	14.3	0.3	-1.0
長期資本收支	-2.9	-4.9	-6.4	-27.2	-3.4	-0.5
短期資本收支	4.2	-1.7	-2.9	13.7	-2.5	-6.7
綜合收支	9.1	5.4	4.1	121.3	-0.6	-9.7

〈地域別貿易收支動向〉

(比前年同月, %)

		1988				1989
		1	11	12	年間	1
美國	輸出	14.4	19.7	20.3	16.9	1.0
	輸入	56.0	37.9	42.1	45.7	39.6
	收支(億弗)	5.5	7.7	10.6	86.5	2.6
日本	輸出	77.4	23.3	18.6	42.3	19.3
	輸入	40.6	19.0	11.3	16.6	10.2
	收支(億弗)	-3.6	-3.6	-3.4	-39.2	-3.3
유럽	輸出	51.8	19.2	12.3	23.0	-2.7
	輸入	59.1	27.5	18.0	28.1	17.0
	收支(億弗)	2.5	2.8	2.6	26.4	1.5
東南亞	輸出	56.8	27.4	54.8	60.2	44.9
	輸入	79.3	41.4	4.5	27.9	20.3
	收支(億弗)	0.6	2.8	4.0	26.8	1.8

흑자가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輸出增加率이 다소 둔화되었다고 해서 輸入擴大努力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수입이 예상대로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分期別 緊急輸入擴大計劃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수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법상 수입제한요소 整備計劃을 확정발표한데 이어 3월중에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관세추가인하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地域別貿易收支〉

1월중 地域別 貿易收支 동향을 보면 전체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對美黑字와 대일적자 모두 전월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월중 對美輸出 增加率은 자동차, 신발 등의 輸出減少로 전월의 20.3%에 비해 크게 둔화된 1.0%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收入은 수송장비등을 중심으로 39.6%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해 對美黑字는 전월보다 8.0억불 축소된 2.6억불의

黒字을 시현하는데 그쳤다.

對日收支는 對日輸出이 국내수급 隘路로 인한 鐵鋼製品의 수출감소 등으로 19.3% 증가에 그쳤으나 對日輸入 역시 電子·電氣등의 수입 둔화로 10.2%에 낮은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對日赤字는 전월에 비해 0.1억불이 줄어든 3.3억불을 나타내 對美黒字 축소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개선추세를 보였다.

〈韓·美通常〉

5월말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을 앞두고 최근 美行政府의 대외통상정책이 강경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힐스 美 通商代表, 모스마처 미상무장관등 통상관련 각료들이 최근들어 對外通商과 관련하여 강경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지난 2월중순 개최된 韓·美 通商협상도 美側의 강경입장 고수로 결렬되어 美政府는 2월 21일 한국을 EC와 함께 通信分野 우선협상 對象國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부시 美 大統領도 지난 2월 27일 訪韓中 韓·美通商問題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農産物을 포함한 市場開放擴大, 원화절상, 지적소유권보호등을 강력 요청한 바 있다.

이와같이 美側의 通商壓力이 가중됨에 따라 政府는 작년말 韓·美 主要懸案課題 解決을 위하여 구성한 4개 特別對策班을 중심으로 영화

및 포도주문제를 타결한데 이어 特別法上的의 수입제한 요소 整備計劃을 확정발표하는 등 對應策을 마련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對應努力에도 불구하고 農産物 輸入開放計劃의 발표지연등으로 美 國側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전반적으로 미측 기대에는 미흡하여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보복관세부과등 우리의 對美輸出主宗品目에 대한 큰 타격이 초래될 危險性이 있다.

따라서 農産物市場開放計劃을 조기에 확정하고 서비스, 外國人投資 등의 분야도 미측 불만 사항중 해결이 가능한 것은 早速히 조치해 가는등 可能한 범위내에서 최선의 努力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財政 및 金融

〈財 政〉

2월중 總財政收支는 財政證券發行으로 特別計定에서 3,03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附加價値稅 還給등으로 일반회계에서 1,436억원의 赤字를 보였고 기금계정에서도 1,139억원의 赤字를 나타내는데 기인하여 전체적으로 1,468억원의 흑자를 시현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政府部門의 通貨還收幅은 1월에 비해 크게 縮小되었다.

〈總 財 政 收 支〉

(國庫集中基準, 億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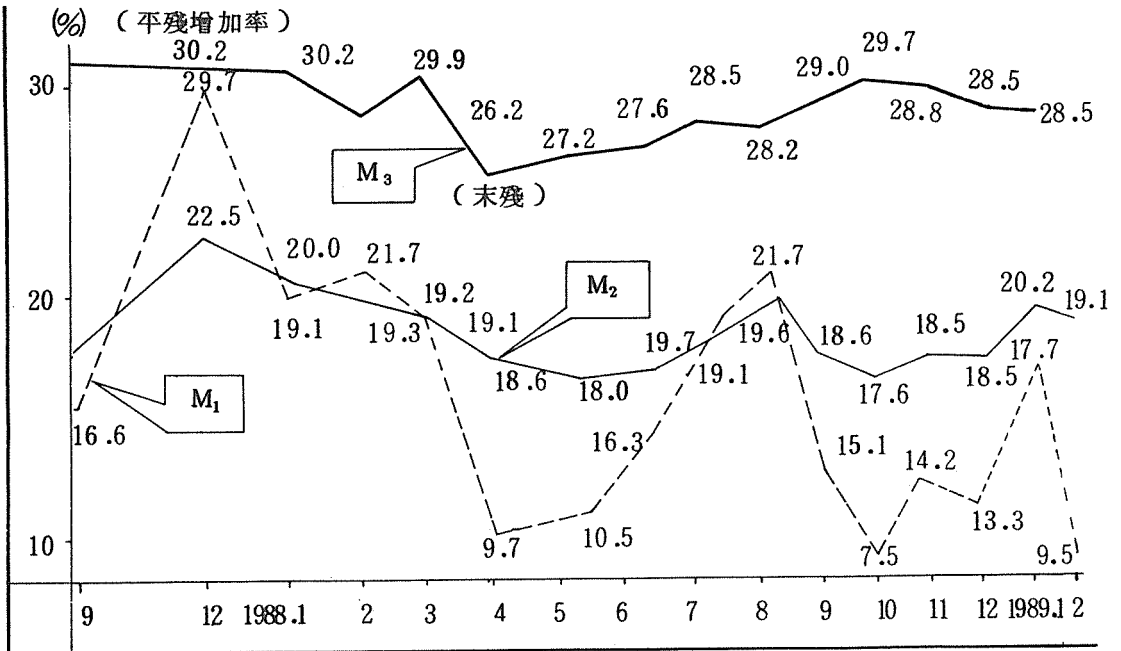
	1988			1989		
	1	2	累計	1	2	累計
一 般 會 計	9,637	-998	8,639	11,050	-1,436	9,614
稅 入	19,004	8,262	27,266	21,850	8,295	30,145
(內 國 稅)	(15,832)	(2,861)	(18,693)	(17,684)	(5,452)	(23,136)
稅 出	9,367	9,260	18,627	10,800	9,731	20,531
特 別 會 計	-266	-269	-535	130	1,007	1,137
基金計定	223	406	629	445	-1,139	-694
特別計定	1,456	-763	693	4,642	3,032	7,674
前年度收支差	652	-	652	1,101	-	1,101
韓銀國債操作	-	-	-	-	4	4
總 財 政 收 支	11,702	-1,624	10,078	17,368	1,468	18,836

〈通貨〉

2월중 總通貨(M₂)增加率(平殘基準)은 전월의 20.1%보다 낮은 19.1%를 기록하였는바, 이는 연말이후 늘어난 市中流動性을 흡수하기 위하여 通貨還收를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각 부문이 모두 通貨還收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政府部門은 財政證券발행(순

증 5,000억원)에 힘입어 3,081억원의 通貨를 환수하였으며 民間部門은 대출금회수등 강력한 통화환수조치로 1,636억원이 감소하여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환수부문으로 작용하였다. 해외 부문은 경상수지흑자규모축소 및 외채상환호조로 전월에 이어 감소추세를 시현하였으며 其他部門에서는 通貨安定證券의 발행확대(순증 15,



〈總通貨의 部門別 增減推移〉

(末殘基準, 增減, 億圓, %)

	1988			1989	
	1	2	12	1	2
總通貨(M ₂)	-7,690	1,209	22,820	-10,564	-13,542
(平殘增加率)	(20.0)	(19.3)	(18.5)	(20.1)	(19.1)
政府	-8,902	-3,365	17,611	-19,926	-3,801
民間	-1,101	1,304	6,652	9,108	-1,636
海外	8,996	13,660	2,964	-163	-416
其他	-6,683	-10,389	-4,397	417	-7,689
(通安證券)	(15,640)	(10,550)	(-1,690)	(4,548)	(15,951)
通貨(M ₁) 1]	19.1	21.7	13.3	17.7	9.5
總流動性(M ₃) 2]	30.2	28.8	28.5	28.5	-

1] 平殘增加率, 2] 末殘增加率

951억원) 등으로 통해 7,689억원을 환수하였다.

한편 通貨(M₁)增加率は 要求拂豫金の 감소에 따라 전월의 17.7%에서 9.5%로 크게 하락하였다.

政府는 通貨가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최근의 物價不安과 不動産投機등 인플레이期待心理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총수요관리 측면에서 通貨를 適正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2월중 總通貨增加率을 19%선에서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약 2조원의 貸出金회수 등 직접규제가 불가피하였으며 3월중에도 18%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연간으로는 15~18%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이와같은 通貨긴축에 따라 1/4분기중에는 資金事情이 다소 경색되었으나 物價不安이 완화되고 通貨證券만기도래분이 줄어드는 2/4분기 이후에는 通貨의 신축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3월부터는 支準, 再割制度, 公開市場 操作機能 活用을 통한 間接規制위주의 通話管理方式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리고 中小企業의 資金難 완화를 위하여 일부에서는 通貨의 신축적인 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의 강력한 通貨還收에도 불구하고 中小企業에 대한 각종 資金支援施策의 추진등으로 資金事情이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大企業 與信規制등을 통하여 여유자

금을 中小企業으로 집중지원하는등 資金흐름을 正常化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支援施策에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철저한 준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3,800억원 및 특별외화대출 20억불 지원이 포함될 것이다.

한편 지난 3년간의 높은 경제성장의 결과 기업이나 가계의 늘어난 여유자금이 證券市場등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시중 여유자금을 증권시장을 통해 기업에 연결함으로써 産業投資資金을 낮은 코스트로 조달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反面 지나치게 投機資金化되는 경우 인플레이 期待心理를 부추키고 生産을 위한 投資活動보다 財테크에 치우치게 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證券市場에 지나친 投機가 발생되지 않도록 企業公開 및 有償增資促進, 國民株普及을 통한 需給均衡 등으로 證券市場의 健全한 育성을 도모하면서 企業의 生産部門에 대한 投資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租稅金融上的 支援 등 각종 投資誘引施策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資本市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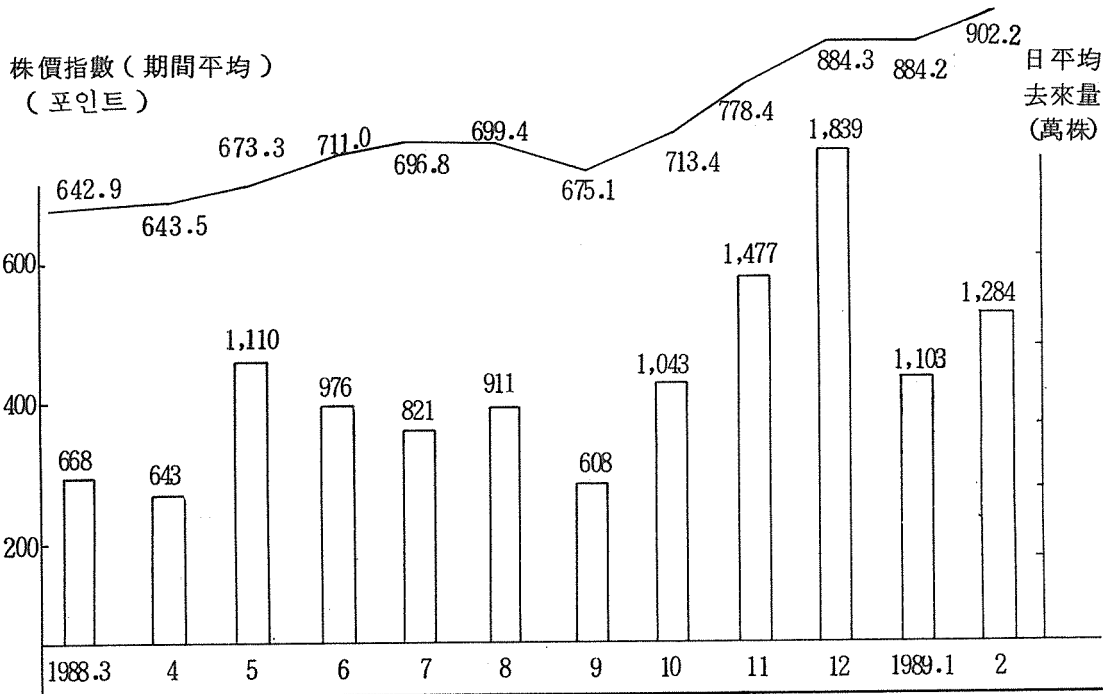
發行市場: 1~2월중 發行市場동향을 보면 會社債發行이 크게 增加함에 따라 直接金融을 통한 資金調達이 1조2,216억원으로 前年同期보다 54.5%가 증가하는 호조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直接金融 促進施策과 아울러 通貨還收을 위한 民間與信規制에 따라 기업이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늘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發行市場動向〉

(億원)

	1987			1988			增減 (B-A/A,%)
	1	2	累計(A)	1	2	累計(B)	
企業公開	-	186	186	-	373	373	100.5
有償增資	306	1,782	2,088	358	1,855	2,213	6.0
會社債發行	1,833	3,800	5,633	4,148	5,482	9,630	71.0
計	2,139	5,768	7,907	4,506	7,710	12,216	54.5

〈株式市場 動向〉



	1988				1989	
	9	10	11	12	1	2
綜合株價指數	675.1	713.4	778.4	884.3	884.2	902.2
株式去來量(日平均, 萬株)	608	1,043	1,477	1,839	1,103	1,284
株式去來代金(月中, 億圓)	25,924	47,619	84,242	97,943	64,374	66,046
債券去來量(日平均, 億圓)	193	290	295	378	313	145

流通市場：1월중 조정국면을 보이던 株式市場은 개인투자자들이 3월이후의 장세를 낙관함에 따라 製造業을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최고치 924포인트(2.23일)를 기록하였으나 기관들의 賣物壓迫으로 다시 하락하여 월말에는 918포인트를 기록하였다.

한편 債券市場은 通貨安定證券發行擴大등 정부의 강력한 통화환수시책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자금 경색으로 거래가 不振하고 收益率이 계속 上昇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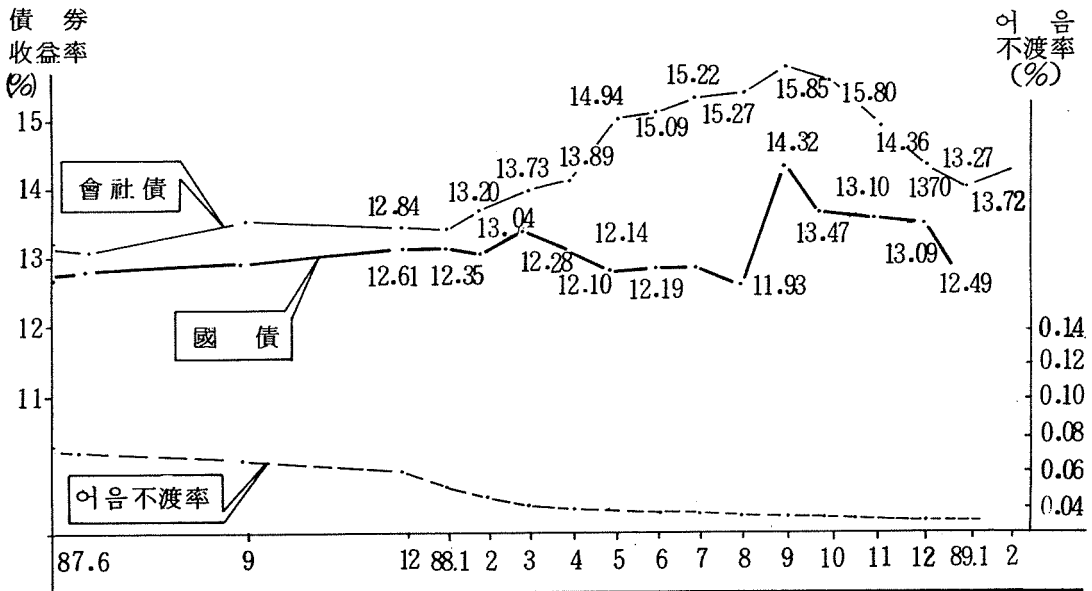
〈市中資金事情〉

2월중 시중자금사정은 通貨還收施策의 강화로 다소 어렵기는 하였으나 원활한 상태를 지속하였다. 전국어음부도율은 0.03%로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債券收益率은 전월보다 약간 상승하였으나 金利自由化이후의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4. 物價

2월중 物價는 월초에 설날을 앞두고 식료품

〈市中資金事情의 흐름〉



	1988				1989	
	9	10	11	12	1	2
全國 어음不渡率	0.03	0.04	0.04	0.04	0.03	0.03
서울	0.02	0.03	0.02	0.03	0.02	0.02
地方	0.13	0.15	0.14	0.12	0.12	0.10
國債收益率	14.32	13.47	13.10	13.09	12.49	-
會社債收益率	15.85	15.80	14.36	13.70	13.27	13.72

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 都賣物價 및 消費者物價가 전월대비 각각 0.2%, 0.3% 상승하였다.

都賣物價는 아연피등 공산품이 國際價上昇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일반미, 사과등 농산물이 약간 上昇하였으나, 닭고기등의 需要減少와 명태, 고등어 등의 漁況好調로 畜水産物이 내림세를 보여 前月對比 0.2% 上昇하는데 그쳤다.

消費者物價는 시금치등의 산지출하량 증가로 農産物은 내림세였으나, 쇠고기, 조기, 고사리등

畜水産物이 설날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賃貸料, 人件費 등 개인서비스 요금과 집賃가 오르는데 기인하여 0.3% 上昇하였다.

2월까지 전년말에 대비하여 보면 都賣物價는 보합수준을 나타냈고 消費者는 0.5%상승에 그쳐 2월중 물가로는 82년이래의 安定勢를 시현하였다.

한편 작년 연말이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上昇하였던 아파트 價格은 정부의 계속적인 投機抑制方針決定(2. 14)이후 보합세를 維持하고 있

〈2月中 部門別 物價變動要因〉

(%, %P)

	都 賣		消 費 者	
	變 動 率	寄 與 率	變 動 率	寄 與 率
農 產 物	1. 3	0. 13	△0. 2	△0. 03
畜 產 物	△1. 6	△0. 07	0. 9	0. 05
水 產 物	△3. 6	△0. 07	2. 0	0. 10
工 產 品	0. 2	0. 13	0. 2	0. 01
公 共 事 務	0. 0	0. 00	0. 2	0. 04
집 費	-	-	0. 2	0. 03
個 人 事 務	-	-	2. 0	0. 15
全 體	0. 2		0. 3	

〈年度別 2月中 物價推移〉

(比前年末, %)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都 賣	1. 5	0. 2	0. 3	0. 1	-0. 5	0. 3	1. 2	0. 0
消 費 者	0. 8	1. 4	1. 5	1. 0	1. 5	0. 6	2. 2	0. 5

는데 앞으로도 정부는 住宅 200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宅地(5,700만평)를 금년중 宅地開發豫定地區로 지정완료하고 지가상승을 노리고 방치되어 있는 都市地域의 遊休地調査등을 통하여

값싼 宅地의 供給計劃을 수립하는 한편 財産稅 重課 및 양도소득세 重課등을 통해 不動產投機를 강력히 抑制해 나갈 것이다.

〈都賣物價 變動推移〉

